

2020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③	2	③	3	②	4	②	5	①
6	③	7	⑤	8	④	9	⑤	10	④
11	④	12	②	13	③	14	④	15	①
16	⑤	17	⑤	18	④	19	②	20	④
21	④	22	①	23	⑤	24	③	25	①
26	⑤	27	③	28	①	29	⑤	30	⑤
31	③	32	③	33	⑤	34	①	35	②
36	③	37	②	38	③	39	④	40	③
41	①	42	②	43	①	44	①	45	⑤

[화법]

1. [출제의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강연자는 이 강연에서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의 담화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청중이 다음 내용을 예측하며 듣게 해 강연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강연자는 ㉠을 활용하여 코미디 장르 포스터와 액션 장르 포스터에 사용된 인물 사진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을 뿐, 장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인물의 정서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강연자는 ㉠을 활용하여 액션 장르 포스터에 사용된 ‘고딕체’가 ‘굵은 직선’으로 ‘강인함을 부각’함을 제시하고, 드라마 장르의 포스터에 사용된 ‘손 글씨체’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감성적인 특징을 시각적으로 나타’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강연자는 ㉠을 활용하여, 액션 장르 포스터에 사용된 글자의 기울기 수치를 ‘15도 정도’라고 밝히고, 액션 장르의 ‘박력 있는’ 특징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강연자는 ㉠을 활용하여, 코미디 장르 포스터에 사용된 그림이 ‘몸을 크게 그려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이를 ‘웃음을 자아내는’ 코미디 장르의 특징과 관련짓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강연자는 ㉠을 활용하여, 공포 장르 포스터에서는 ‘검은색과 선명한 빨간색’으로 연출되는 ‘섬뜩한 분위기’를, 드라마 장르 포스터에서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으로 연출되는 ‘잔잔한 분위기’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강연 내용 이해하기

5분단에서 강연자는 공포 장르 포스터에서는 ‘적막하고 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글자는 기울여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5분단에서 강연자는 공포 장르 포스터는 ‘제목의 글자 끝에 날카로운 장식’을 더하면 긴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5분단에서 강연자는 공포 장르 포스터는 ‘글자의 서체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획의 끝이 뾰족한 명조체를 사용’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5분단에서 강연자는 공포 장르 포스터는 이미지에 ‘영화 내용과 관련된 사진을 주로 사용’한다고 했고, ‘핵심 소재를 클로즈업해 시선 집중을 유도’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분단에서 강연자는 공포 장르 포스터는 ‘검은색과 선명한 빨간색이 대비를 이뤄 영화의 섬뜩한 분위기를 표현’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화법 · 작문]

4.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학생 3’은 ‘학생 2’의 ‘자신의 목적을 위해 ~ 부정적

이라고 생각해’라는 의견에 대해, [A]에서 ‘타인의 생명을 ~ 문제라는 거지?’라며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 묻은 후, ‘학생 2’의 반응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학생 3’이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또한 ‘학생 3’은 자라가 ‘용왕을 살리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B]에서 자라의 거짓말로 ‘피해는 토끼가 보고’ 있고 ‘다른 이를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나쁜 거짓말’이라 반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공손한 표현 적용하기

‘네가 공책을 다 보고’ 난 뒤에 ‘시간이 괜찮다면’ 공책을 빌릴 수 있는지를 물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있고, ‘너는 정말 필기를 꼼꼼하게 잘’한다고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과 수정 방안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가)의 ‘학생 2’가 ‘나는 용왕의 ~ 자라는 긍정적’이라는 말에서 자라의 충성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보기> 3분단의 ‘자라의 충성심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음을 부각’하는 내용을 (나)의 3분단과 같이 수정하였다. 그런데 (나)의 3분단에는 오늘날 생활하는 삶의 태도보다 신의를 지키는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학생 3’이 ‘반면에 토끼는 ~ 기지를 발휘하잖아.’에서 토끼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보기> 1분단의 ‘토끼의 부정적인 ~ 자라임을 부각한다.’의 내용을, (나)의 1분단에서 ‘토끼가 보여 준 ~ 중요한 요소들이다.’로, 자라와 마찬가지로 토끼도 바람직한 삶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수정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자신의 목적을 ~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에서 ‘학생 2’의 용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나는 오히려 ~ 비판받아 마땅해’에서 ‘학생 3’의 자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드러난다. 이를 반영하여 <보기> 2분단에서 토끼의 ‘헛된 욕심과 경솔함이 갖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던 내용을, (나)의 2분단에서는 ‘용왕은 자신이 ~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에서 용왕, 토끼, 자라가 모두 성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학생 3’은 ‘자라는 용왕을 위해 ~ 나쁜 거짓말일 뿐이야.’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보기> 3분단의 ‘친구와 다투었던 경험’을, (나)의 3분단에 ‘피구 대회에 반 대표로 참가’하여 ‘이기고 싶은 마음에 반칙을 하고도 말하지 않아’ ‘거짓된 행동으로 다른 반이 피해를 입었던 나의 경험’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학생 2’는 ‘특히 인물들의 ~ 알게 되었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보기> 4분단의 ‘자라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나)의 4분단에서 ‘울고 그림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는 삶의 태도’를 지니겠다는 다짐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되돌아보다’는 ‘지나온 과정을 다시 돌아보다’는 의미의 동사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나의 삶’이 적절하므로, 부사어인 ‘나의 삶에’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분단에서 ‘성찰이 부족’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결렬’은 ‘갈래갈래 찢어짐. 교섭이나 회의 따위에서 의견이 합쳐지지 않아 각각 갈라지게 된.’의 의미이므로 부적절한 어휘이다. 따라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빠져서 없거나 모자람.’의 의미인 ‘결여’로

고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② ‘그러나’는 앞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하므로 문장의 선후 관계를 고려할 때 ‘그리고’로 고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③ ‘내가 제일 ~ 축구가’라는 내용은 성찰을 다루는 (나)의 내용과 통일성이 어긋나므로 삭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④ ‘때문에’는 원인이나 까닭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일을 가정하는 ‘만약’과 호응하지 않으므로 ‘있었다면’으로 고치는 방안이 적절하다.

[작문]

8. [출제의도] 초고 작성을 위한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의 ‘챌린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경우’를 고려하여, (나)의 4분단 ‘물론 일부 ~ 있을 것입니다.’에서 챌린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챌린지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례를 들어 상업적 목적의 챌린지가 지닌 의의를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의 ‘우리 학교 학생회 학생들이 트래시 태그 챌린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음’을 고려하여, (나)의 1분단 ‘트래시 태그 챌린지는 ~ 같은 활동입니다.’에서 트래시 태그 챌린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의 ‘트래시 태그 챌린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이유를 궁극해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나)의 2분단 ‘우리 지역은 ~ 쉽게 볼 수 있습니다.’에서 우리 지역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의 ‘트래시 태그 챌린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이유를 궁극해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나)의 3분단 ‘학생들이 트래시 태그 챌린지에 ~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에서 트래시 태그 챌린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의 ‘챌린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경우’를 고려하여, (나)의 4분단 ‘물론 일부 기업들이 ~ 있을 것입니다.’에서 챌린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하지만 제가 건의한 ~ 가능성은 없습니다.’에서 자신이 건의하는 트래시 태그 챌린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에 ‘우리 동네 지리를 구석구석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치우게 된다면 환경미화원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보기>의 ㉠에 △지역 거리 환경미화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좁은 골목길로 인해 쓰레기 처리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37%임이 나타나 있으며, ㉠에 ‘캠페인의 성격을 ~ 동기를 갖게’ 됨에서 챌린지를 통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챌린지를 통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가 좁은 골목길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건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과 ㉡를 활용하여 내용을 추가해야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에 ‘우리 지역은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보기>의 ㉡-1은 △지역 관광객 수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0만 명에서 31만 명, 45만 명, 62만 명으로 증가하고, 쓰레기 배출량도 2015년에는 100톤 미만이었다가 점점 증가하여 2018년에는 200톤 가까이 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1을 활용하여 관광객 증가 추이와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 추이를 수치로 추가해야겠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에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더러워진 골목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보기>의 ㉔-1은 △△지역 쓰레기 배출량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며, ㉔-2는 △△지역 전체 쓰레기 배출량 중 무단 투기된 쓰레기의 비율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㉔-1과 ㉔-2를 활용하여 쓰레기양 증가와 함께 무단 투기된 쓰레기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㉔에 '인력 부족으로 쓰레기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골목 구석구석마다 쓰레기 더미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㉔는 △△지역 거리 환경 미화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쓰레기 처리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2%로 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원인을 중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상황 분석에 대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㉔를 활용하여 인력이 부족해 쓰레기 처리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㉔에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㉔는 'SNS를 통한 켈린지의 확산은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고양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언급된 자료이다. 따라서 권의 내용에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㉔를 활용하여 SNS를 통한 켈린지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문제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다는 것은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글쓰기

'켈린지는 우리말로 도전입니다.'에서 '켈린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마중물과 같은'이라는 직유법을 활용했고, '제 권의를 받아들여 주세요.'로 권의한 내용의 수용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적절하다.

[문법]

11.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옛이야기[엔:니야기]'는 첨가에 해당하는 'ㄴ'첨가와 교체에 해당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이때 음운의 개수가 늘어났으므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표기 반영 여부 이해하기

㉔의 '떠'는 어간 '뜨-'의 모음 '-ㅓ'가 '-ㅏ/-ㅓ'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탈락하는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고, ㉔의 '가서'는 어간 '가-'의 모음 '-ㅏ'가 '-ㅏ/-ㅓ'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ㅏ'가 탈락한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㉔의 '서라'는 어간 '서-'의 모음 '-ㅓ'와 '-ㅏ/-ㅓ'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ㅓ'가 탈락하는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고, ㉔의 '끓어라'는 어간 '끓-'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㉔의 '꺼'는 어간 '끄-'의 모음 '-ㅓ'가 '-ㅏ/-ㅓ'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탈락하는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고, ㉔의 '신고'는 어간의 끝소리 'ㄴ'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교체되는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㉔의 '마는'은 어간 '말-'의 끝소리 'ㄹ'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고, ㉔의 '쌍은'은 어간 '쌍-'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

하는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㉔의 '너는'은 어간 '널-'의 끝소리 'ㄹ'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고, ㉔의 '답고'는 어간의 끝소리 'ㄹ'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교체되는 경우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피동 표현 이해하기

'안겼다는' '두 팔로 감싸게 하거나 그렇게 하여 품 안에 있게 하다'의 의미로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피동 표현이 실현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풀렸다는'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가 밝혀지거나 해결되다'의 의미로 피동 표현이 실현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읽혔다는' '글에 담긴 뜻이 헤아려져 이해되다'의 의미로 피동 표현이 실현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짜였다는' '풀이나 털 따위가 잘리다'의 의미로 피동 표현이 실현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이용되다'는 '대상이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쓰이다'의 의미로 피동 표현이 실현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탐구하기

'가시니'는 어간 '가-'뒤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에 의해 높임 표현이 실현된 것으로 특수 어휘가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쁘기'는 초성에 어두 자음군 '쁘'가 쓰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쓰니'는 목적격 조사 '을'이 쓰였고, '자취'는 목적격 조사 '를'이 쓰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브리스'의 'ㅅ, ㅍ'은 현대 국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문자이므로 적절하다. ⑤ '가름, 조차'는 '걸음, 좇아'를 이어 적기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맞춤법 규정 이해하기

'안개꽃 밖에'의 '밖에'는 조사로 한글맞춤법 제41항을 적용해 '안개꽃밖에'로 써야 한다. 따라서 제41항을 적용해 '안개꽃밖에'로 정정해야겠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고전소설·극 갈래 복합]

[16~19] <출전> 작가 미상, 「임진록」
전철홍·김한민, 「명량」

16.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적선 수백 척'을 보고 '도망하려 하'던 안위가 '달아나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는 이순신의 외침에 '적진에 달려들어 싸우다가' '적선이 안위의 배를 둘러싸고 공격'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안위가 적선을 피해 달아나다가 위기에 처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요시라는 '이순신을 결단낼 계책을 행하'라는 행장의 '명을 듣고' '김응서를 찾아'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권율이 순신에게 '그대는 마땅히 요시라의 약속을 믿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성'에 간 순신이 '겨우 섬여척의 전선'만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김억추에게 '전선을 수습하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순신이 '임금께 이되어 칭'한 내용에서 '만약 바다를 버리면 적어 서해 바다를 거쳐 한강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장면의 특징 이해하기

S#51에서 싸움은 '불가합니다'라는 정수 일동의 호소를 들은 이순신이 '군사들을 마당에 모으'게 하고, S#52에서 김돌손으로 하여금 '햇불을 던져 넣'게 하여 우수영 본채를 불태운 후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우수영을 불태운다'라며 결심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의 특성 파악하기

[A]는 '내가 연락하거든 그 즉시 수군을 거느리고 나와 공격하면 청정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벌이질 상황을 언급하면서 '오래지 않아 청정이 다시 바다에 나올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B]는 '열두 척의 배가 남아 있다'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며 '죽음을 다하여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갈래의 특성 이해하기

(가)의 순신이 '장수들을 모아' '마땅히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엄하게 주의를 주어' 말했다는 부분과, 이 말을 듣고 '장수들 중에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는 부분을 통해 '마땅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는 말을 한 것은 순신이며 '감동'한 것은 장수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수들의 결심에 순신이 감동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순신이 군관 십여 명과 ~ 보성에 가서 보니'에서 순신이 진주에서 보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서술자가 요약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나)의 '장군! 소장 ~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무리 적들을 ~ 귀한 때입니다'에서 안위가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며 이순신을 설득하는 과정을 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순신이 '십여 척 전선으로 맞아 싸우라'라고 '다급하게 명령'하는 부분으로 보아, 인물의 태도를 서술자가 직접 설명함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의 '(의외로 담담하게) 그대들의 뜻이 정혀 그러하다면'에서 인물의 태도를 지시문을 통해 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순신을 둘러싸고 ~ 사방을 둘러싸는지라'에서 인물이 처한 상황을 서술자가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의 '바람에 흔들리는 ~ 긴장된 분위기'에서 긴장된 상황이 지시문을 통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전선을 휘몰아 ~ 물러나게 되었다'에서 '적을 공격'하는 장수들의 행동을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의 '글씨를 쓰던 ~ 글씨를 이어가는 이순신'에서 장계를 쓰는 이순신의 행동이 지시문을 통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사회]

[20 ~ 24] <출전> 이근, 「경제추적론의 재창조」

20. [출제의도] 글의 주제 파악하기

1문단의 '그런데 오늘날의 국제 ~ 추격 사이클이 이른 것이다.'와 4문단의 '결국 기업의 추격 사이클은 ~ 결과라고 할 수 있다.'를 보면 이 글은 산업의 주도권이 이동이 기업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의 '국영 기업 혹은 ~ 비용 우위를 누린다.'를 보면 국영 기업은 후발 기업으로 나타날 때 선발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비용 우위를 누리기 어렵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의 '이때 비대칭적인 환경의 ~ 놓이게 한다는 것이다.'를 보면 산업 진입 허가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를 통해 선발 기업이 자국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2문단의 '첫 번째는 새로운 ~ 출발점에 서게 된다.'를 보면 새로운 기술은 선발 기업과 후발 기업이 비교적 동등한 출발점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2문단의 '두 번째는 시장의 ~ 이득이 될 수 있다.'를 보면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 중에는 기술 이전과 지식 획득이 쉬워지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가 적절하다.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2문단의 '경기 순환 또는 ~ 이용할 수 있다.'를 보면 경기 순환에 따른 불황기에는 선발 기업의 적자로 인해 방출되는 자원을 후발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해진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맥락에 맞는 표현으로 바꾸 쓰기

4문단의 '결국 기업의 추격 사이클은 ~ 결과라고 할 수 있다.'를 보면 ㉠의 '외부적 요인'은 '기회의 창'에 해당하고 '주체적 요인'은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을 기업에 주어지는 기회와 이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모두 고려한다고 할 수 있다는 진술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B사 중심의 추격 사이클]을 보면 ㉡와 ㉢ 사이에서 B사와 C사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고 A사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므로 ㉡와 ㉢ 사이에서 A사의 시장 점유율과 달리 B사와 C사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기 때문에, A사는 새로운 도전자로서 부상하는 움직임 을 보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B사 중심의 추격 사이클]을 보면 ㉡에서 B사는 진입 단계로 A사보다 시장 점유율이 낮다. 그리고 이 글과 [상황]을 보면 B사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성장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B사 중심의 추격 사이클]을 보면 ㉢에서 B사는 점진적 추격 단계로 시장 점유율이, 진입 단계인 ㉡에서보다 더 높다. 그리고 이 글과 [상황]을 보면 B사의 주주들은 투자를 위한 이윤 확보에 협조적이었으므로 적절하다. ③ [B사 중심의 추격 사이클]을 보면 ㉣부터의 A사 시장 점유율 변화 양상과 ㉤부터의 B사 시장 점유율 변화 양상은 감소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리고 이 글과 [상황]을 보면, 전자의 원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의 향상을 원하는 청년층이라는 새로운 소비자층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이고, 후자의 원인은 휴대전화 게임의 그래픽 기능 향상을 원하는 청소년층이라는 새로운 소비자층의 등장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B사 중심의 추격 사이클]을 보면 ㉡와 ㉢ 사이에서 A사와 B사의 시장 점유율 우위가 바뀐 것을, ㉣ 이후에 B사와 C사의 시장 점유율 우위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글과 [상황]을 보면, 전자에는 B사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향상시킨 신기술을 채택한 것이 영향을 주었고, 후자에는 B사가 휴대전화 게임의 그래픽 기능 향상을 가능하게 한 신기술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주었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상황을 가정하여 추론하기

3문단의 '그러나 점진적 추격 단계에 ~ 중도 실패 사이클이라 한다.'를 보면 B사가 ㉠을 생산하지 못한 경우 중도 실패 사이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문단의 '그런데 제3단계에서 선발 기업은 ~ 슈퍼 사이클이라고 한다.'를 보면 B사가 ㉡를 생산했고 ㉢에 민첩하게 대응한 경우 슈퍼 사이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B사가 ㉡를 생산했고, 만약 ㉢에 민첩하게 대응했다면 슈퍼 사이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겠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현대사]

[25~28] <출전> 백석, 「고야(古夜)」
나희덕, 「겨울산에 가면」

25.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는 2연의 '재밌', 3연의 '고무'와 같은 평안 방언을 사용하여 고향에서 경험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 (나)는 방언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5연의 '밤'에서 화자는 '할미귀신'이 '넙얼눈을 받기 위해 '못 난다는 말'을 '든든히' 여기고 전통적 풍속을 따르고 있으므로, '할미귀신'을 든든히 여기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1연의 '밤'은, '소를 잡아먹는 노나라꾼들이 도적놈들'처럼 '콩콩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닌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무서움을 형상화한 시간이므로 적절하다. ② 2연의 '밤'은, '조마구'가 '새까만 눈알'로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이불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형상화한 시간이므로 적절하다. ③ 3연의 '밤'은 '쇠든밤', '은행여름'을 먹는 행위, '이불' 위에서 '광대놀이'를 하는 행위, '임매'에게 '이야기'를 듣는 행위의 나열을 통해 가족 공동체와 보낸 정겨움을 형상화한 시간이므로 적절하다. ④ 4연의 '밤'은 '명절날' '곰국'의 '구수한 내음'이라는 후각적 이미지와 화자가 '실랑' 든 콩가루소를 먹으며 '맛있다고 생각'하는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 먹을거리의 풍요로움을 형상화한 시간이므로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보기>에서 서정 갈래의 현재 시제는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현재가 아니라고 했고, (나)의 '있다'에서는 '밀등만 남은 채 눈을 맞는 나무들'에 대한 인상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적 체험은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현재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서 현재 시제로 표현된 상황은 마치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함을 느끼게 된다고 했고, (가)의 '다니다'에서는 '노나라꾼들이 '콩콩거리며' 다니는 상황에 대해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서술함으로써 상황이 마치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유발하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화자의 시적 체험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게 되면 화자의 감정과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고 했고, (가)의 '받는다'에서는 '눈세기물'을 '지성'을 드리는 듯한 마음'으로 받는다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서술함으로써 화자의 행위와 주관적 감정에 집중하게 하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화자의 시적 체험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게 되면 화자의 인식에 집중하게 되며, 서정 갈래의 현재 시제는 가상적 현재를 의미한다고 했고, (나)의 '보고 있다'에서는 화자가 '나이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트가' '나'를 보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서술함으로써 화자의 인식인 시적 체험을 가상적 현재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시적 체험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게 되면 그 상황을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고 했고, (나)의 '자라고 있다'에서는 '뿌리박힌 곳에서' '어린것들'이 '자라고' 있는 상황을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서술함으로써 상황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는 시적 효과를 얻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이해하기

화자는 '겨울산'에서 '나를 바라보는 나이트'를 통해 출산으로 인해 '맘'을 흘리고, '도끼로 찍히고 베이고 눈 속에 묻히'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고요히 남아서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의 무한한 모성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과학]

[29 ~ 33] <출전> 세이젠, 「알기 쉬운 열전달」

29.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1문단의 '이러한 전도는 ~ 경우에도 발생한다.'를 보면 전도는 한 물질 안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전도란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조리 과정에서 전도에 의한 열전달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이는 물질이 ~ 즉 열전도도가 물질마다 다르'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열전달 과정에서 단위 시간 동안 ~음식의 조리에서 고려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2문단에서 '따라서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열전도도가 높은 경우 열전달률도 높게 나타난다.'고 했으므로 현관문을 통한 열전달률을 낮추려면 열전도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따라서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열전도도가 높은 경우 열전달률도 높게 나타난다.'고 했으므로 지붕에 열전도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하면 지붕을 통한 열전달률을 낮출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전도에 의한 열전달률은 ~ 면적에 비례'한다고 했으므로 창문의 면적을 줄이면 창문을 통한 열전달률을 낮출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전도에 의한 열전달률은 ~ 거리가 멀어질수록 열전달률은 낮아진다.'고 했으므로 외벽의 두께를 두껍게 하면 전도가 일어나는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외벽을 통한 열전달률을 낮출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전도에 의한 열전달률은 ~ 면적에 비례'한다고 했으므로 난방용 온수 배관과 방바닥 사이의 접촉 면적을 넓히면 난방용 온수 배관에서 방바닥으로의 열전달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1. [출제의도] 핵심 과정 이해하기

4문단에서 '수분이 수증기의 형태로 튀김 재료에서 빠져나감에 따라 재료 안쪽의 수분들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표면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냄비를 가열하여 식용유의 온도를 충분히 높'인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이 기포들은 ~ 순간적으로 많은 열이 전달되어 생겨난 것'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이 기포들은 ~ 재료 표면의 수분이 수증기로 변한 것이'라고 했고 '이 기포들은 식용유 표면으로 올라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고' 4문단에서 '그 결과 지속적으로 재료의 수분은 기포로 변하고 이로 인해 재료는 수분량이 줄어'든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이 기포들은 식용유 표면으로 올라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고 이때 지글지글 소리가 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4문단에서 '또한 튀김 재료 표면의 기포들은 재료와 식용유 사이에서 일종의 공기층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고 '식용유가 재료로 흡수되는 것을 막고' '기포들을 거쳐 열전달이 일어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⑥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⑤가 문맥적으로 가장 유사하다.

①은 '일정한 선 따위를 그대로 밟아 움직이다'의 의미로, ②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의 의미로, ③은 '남이 하는 대로 같이 하다'의 의미로, ④는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나다'의 의미로 각각 사용되었다.

[인문]

[34 ~ 38] <출전> 박영숙, 「보고 듣고 만지는 현대사상」

34.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개념주의적 태도를 지닌 기존 사상가들의 견해를 비판하며 그와 대비되는 들뢰즈의 견해를 소급과 연주자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5. [출제의도] 핵심 개념으로 내용 이해하기

㉠은 개념에 해당하고, ㉡과 ㉢은 개별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 달리 ㉢은 개별 대상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의 '왜냐하면 개념적 차이는 ~ 무시되기 때문이다.'를 보면 개념의 폭력은 개별 대상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무시할 때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의 '또한 들뢰즈는 ~ 상황을 우려했다.'를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의 '왜냐하면 이와 ~ 있기 때문이다.'를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의 '개념이란 여러 ~ 관념을 말한다'와 3문단의 '개념에 맞추어 ~ 상황을 우려했다'를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의 '왜냐하면 이와 ~ 있기 때문이다.'를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사체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보기>의 한나는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의 면과 육수를 비교하여 소개하는 책자의 내용을 읽고 두 냉면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2문단의 '개념적 차이란 ~ 상대적 다름을 의미하며'를 보면 한나가 알게 된 두 냉면의 차이는 개념적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첫 번째 학생이 '한나는 냉면이 지닌 절대적 다름을 알게 된 것이군.'이라고 댓글을 작성했으므로 이는 개념적 차이를 차이 자체로 오해한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학생의 댓글에는 '너는 ㉠을, 차이 자체를 알게 된 것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너의 의견은 들뢰즈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보기>의 '이러한 엔디 워홀의 ~ 없음을 보여 준다.'와 4문단의 '들뢰즈가 말하는 반복이란 ~ 과정을 의미한다'를 보면 들뢰즈의 입장에서, 엔디 워홀은 같음을 생산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각각 강도가 다른 결과물을 제작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의 '더 많은 개념들을 ~ 헤겔 변증법의 핵심이다'와 3문단의 '들뢰즈는 개념적 차이로는 ~ 무시되기 때문이다.'를 보면 들뢰즈의 입장에서, 헤겔의 변증법을 활용하더라도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결과로는 개별 대상을 온전히 규정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의 '헤겔은 세상을 ~ 변증법을 제시했다.'와 1문단의 '이러한 개념을 통해 ~ 사상가들이 있었다.'를 보면 들뢰즈의 입장에서, 헤겔이 세상을 보는 방법론은 미리 만들어진 개념이 현실 세계의 개별 대상들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의 '이러한 엔디 워홀의 ~ 없음을 보여 준다.'와 4문단의 '들뢰즈가 말하는 ~ 감각적 경험을 의미한다'를 보면 들뢰즈의 입장에서, 엔디 워홀의 작품들에서는 색상과 윤곽선의 지각을 통해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시가]

[39 ~ 42] <출전> 정철, 「훈민가」

작자 미상, 「복선화음륙」

39.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풀뭉퀴시거든 두 손으로 바티리라', '나갈데 거시거든 막대 들고 조츠리라'와 (나)의 '문전옥담 큰 농장이 물난리에 내가 되고', '안팎 기와 수백간이 불이 붓터 밧지 되고'를 보면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이해하기

(나)의 ㉢은 '이웃집'에 갔던 '실매'가 돌아와서 화자에게 한 말에 해당하므로 실매에게 하소연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화자는 '염치'가 없어 자신의 '서러운 소설'을 '친정에 편지'하는 것이 '불가항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서 화자는 '빈궁'이 타인의 탓이 아닌 '내 팔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화자는 '밤낮으로 힘써 벌면' '김장조'와 '이부조'처럼 자신도 '부조'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화자는 '길쌈도 흐려니와' '전답' 얻어 '역농'하여 '가업'의 '초성'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가)의 '나갈 데 거시거든 막대 들고 조츠리라'와 '향음주 다 파혼 후에 되서 가려 흐노라'를 보면 화자가 상대방을 위해 '막대'를 '들고' 쫓겠다고 하고 '향음주 다 파혼 후에 되서' 가겠다고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은 타인을 위한 행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암집에 가 밤을 빌고 뒤집에 가 장을 빌고'를 보면 ㉢은 '태산'같이 쌓인 '전곡'이 사라진 상황에서 '단독일신 뿐인' '괴퐁이'가 자신을 위해 한 행위에 해당함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나)의 '이절 앞던 시아버지 초상헌달 상관하랴'와 '제스음식 츄털 적에 정성 읍시 흐엿스니'를 보면, '이절 앞던 시아버지'가 '초상'헌달 상관하지 않고 '정성' 없이 '제스음식'을 차린 '괴퐁이'가 '시가'를 '준중'하는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귀신'을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이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사람이 되어 나서 울터긔 못헌'과 '미쇼를 갖 곳갈 쇠뿔 밧 머기나 다락'을 보면, '갖 곳갈'을 쓰고 '밥'을 먹는 '미쇼'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한 대상으로 이를 통해 옳은 일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미쇼 사람들하 울흔 일 흐자사'를 보면 구체적인 청자로 '미쇼 사람들'을, (나)의 '딸아딸아 요내딸아 시김시리 조심하랴'를 보면 구체적인 청자로 '딸'을 제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풀뭉퀴시거든 두 손으로 바티리라'를 보면 어른에 대한 공경을, (나)의 '계진 그르 좋단 말은 시가를 준중하리라'를 보면 부녀자의 덕목이 드러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내 논 다 매어든 내 논 곶 매어 주마'를 보면 '내'가 '내 논'도 매어 준다고 하며 실천하려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음을, (나)의 '수족이 건강하니 내 힘써 벌게 되면'과 '치산법절 힘쓰리라'를 보면 '수족이 건강'한 '내'가 재산을 늘리는 일에 '힘써' 벌겠다고 하며 실천하려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43 ~ 45] <출전> 한승원, 「버들떡」

43.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A]의 '우중충한 안개가 그녀의 마음속에도 끼어 있었다'에서 구체적인 자연물인 우중충한 안개를 통해 제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손자에 대한 버들떡의 'آمد담'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의 뒤에 이어지는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되지만'으로 보아, ㉠에서 버들떡이 기대한 만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확신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은 버들떡이 용복의 상처를 아무런지며 '얼마나 아팠을까. 가슴이 아리고 쓰리게 느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용복이 버들떡이 '독거노인에게 주는 생계비'를 '한 폰도 쓰지 않고 모두' 주었는데도 그것이 돈이냐며 반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수문떡이 광주 양반의 '딸이 위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으며 수문떡이 언급한 광주 양반의 '맘이 천근만근'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주 무겁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⑤ ㉥은 상근의 말에 대해서 광주 양반이 '지놈이 아랑곳할 것이 무엇'이냐며 노여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것은 광주 양반의 딸이며 광주 양반이 아니므로 '모아 놓은 돈'을 팔아서 '다 보내'서 광주 양반이 수술을 못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광주 양반이 '모아 놓은 돈'을 팔에게 '다 보내' 준 것에서 노인의 경제적 궁핍에 대한 젊은이의 무관심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① 버들떡이 자신은 '아깝다고 밤에 잘 때 한 차례만 때'는 기쁨을 용복이 '계속 때리고 들어도' '말리지 않는' 것은 유일한 피붙이 손자에 대한 내리사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버들떡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지만 용복을 통해서 '살'의 허기를 충족하는 것은 쇠약한 노인 버들떡이 손자에게 삶의 희망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버들떡이 '독거노인에게 주는 생계비'를 '한 폰도 쓰지 않고 모두' 손자에게 주는 것은 소외된 노인의 조건 없는 회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상근이 '벌어 놓은 재산'도 없이 '동네 사람들'에게 '곡식이나 반찬 얻어먹고' 산다고 언급한 광주 양반의 처지는 노인 계층의 빈곤 문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